

테마칼럼

남도의 개발

도시와 삶

일터에 살면서

민생과 생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조건



노경수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는 돌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부터 하나씩 결실이 쌓여갈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21세기 새천년의 시작인 2000년에서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도시를 역시 급격하게 변모했으며, 앞으로 그 추이는 더 빨라질 것이다.

도시의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구도심과 신시가지로 양극화되고,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쇠퇴를 거듭해 신시가지와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동인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첫 번째 '활력'은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21세기에는 도시의 역할이 커지면서 도시국가가 변성

했던 중세에 비견되는 신중세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날 40개 주요 도시권이 이 세계 경제활동의 3분의 2, 혁신의 90%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화돼 국가보다 도시가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복색'으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환경문제이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온실가스배출 감축 노력은 최근 국제협약으로까지 발전했다.

세 번째 신개발 중심 정책은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고 정비·복원하는 '재생'으로 옮겨가야 한다. 기존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과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서 탈피, 쇠퇴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인 접근시각이 필요하다.

해서는 부분별한 재개발 방식이 아닌 기성시가지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 및 커뮤니티 형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삶의 질과 '복지'이다.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 주거시설 등이 제공돼야 한다.

여섯 번째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포괄하는 '참여'이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하향식 개발사업형 도시계획에서 주민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상향식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체계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는 돌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부터 하나씩 결실이 쌓여갈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 지금이 봉이나 부릴 때인가

19년 연속 파업 기록을 세운 기아차 노조가 이번에는 광주공장 증설 공사를 임금협상과 연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지회가 6일 회사 측의 50만대 생산체제 구축 공사에 반발해 전날 공장장실을 점거한 데 이어 공사현장을 봉쇄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노조 측은 이 같은 단체행동은 명분 없는 '떼쓰기'에 불과하다. 우선 광주공장 증설은 근로조건 개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기아차는 지난달 현재 연 12만 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노조 측도

합원의 속원 사업이었음을 고려해 사측의 투자공사 진행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미래가 달린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회사야 어떻게 되든 '내 배만 부르면 된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지역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기아차와 함께 지역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은 워크아웃에 들어가 수많은 종업원과 협력업체가 구조조정 불안을 떨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이런 상황에서 대의도, 명분도 없는 투쟁만 일삼는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다. 회사는 물론 지역경제의 희망인 광주공장 증설 공사를 방해하는 행동은 정당 중 지되어야 한다.

16만개 지역일자리 제공, 줄속 추진 없어야

행정안전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1조3천억원을 투입해 16만 개의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 차원에서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요 지자체에는 맞춤형 취업알선 기관인 '일자리 종합센터'가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매달 한 차례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도 예정돼 있다. 전 행정력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이달말 행안부 장관의 각오다.

행안부까지 고용 창출에 나선 것은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은 3~4%대로 비교적 낮지만 지난해 말 '사실상 실업자'는 330만명으로, 실업률이 무려 12.6%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청년 인턴제나 공공 근로제는 개선의 소지가 많다.

구직 희망자들에게 직무능력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잔심부름 정도 지자체에는 맞춤형 취업알선 기관인 '일자리 종합센터'가 운영된다.

고용 증대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고용 대책은 한계가 있다. 임시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실업률이 두 자리 숫자라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새해 국정과제의 가장 큰 목표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때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박병주

#1 이야기

1965년 7월 영국 웨일스에서 태어난 엑스터 대학 불문학을 졸업한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가 25세가 되던 해에 두 가지 큰 시련을 당하게 된다. 하나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다.

리에 이어 세계여성부차 2위로 등극하여 현 재산 1조 130억원의 자산가가 되었다. 조앤롤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권하고 있다.

1900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애틀랜타 저널 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흥미로운 기사거리로 언론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1925년 광고 대행업자인 로버트 마쉬와 결혼하였다. 남편은 그녀의 문필을 인정하고 어려서부터 들은 남북전쟁과

다시 시작하는 새해

개월 된 발을 안고 다시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온다.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는 에든버러의 아파트에 단칸방을 얻어 거기에 정착하게 된다.

재건기간중의 이야기를 작품화 해보라고 격려하였다. 그러던 그녀에게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온다. 말을 타다가 떨어져 심한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그녀는 신문기자 생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곁을 수 조차도 없어 아파트 침실에서 한 발자국을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남편 마쉬는 아내가 심각한 정신장애가 오지 아닐까 걱정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이라면 명작을 쓸 거라고 격려한다. 이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장장 10여년 걸리는 작업이었다. 그녀의 나이 36세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다음해에 그 책으로 풀리처상을 받게 된다. 이 여인은 유명한 마가렛 미첼이다.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녀의 사고는 오히려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었다.

지나해의 실패와 절망을 잊어버리고 새해의 희망을 갖고 다시 한 번 시작하자. <광주열린교회 목사>

기고



전주언

2010년 새해가 밝았다.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하나씩 가슴에 품게 된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해소망 1위로 꼽힌 것은 단연 건강이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좋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은 행복한 삶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때서 서구는 올해 건강도시 만들기 에 매진하려고 한다. 금당산과 중앙공원 일원은 웰빙숲을 조성하고, 중앙호수는 도심수변공원으로 가꿀 예정이다. 윤현호수는 시 사업으로 환경친화적인

통해 침체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서구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지난 2008년 개교한 상일여고의 자율형 공립고 개편 추진과 옛 국군통합병원 자리에 광주여고의 이전은 교육 1등구 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에 이어서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의 본격 추진과 그동안 지연되었던 화정남

2010년엔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자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돼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이자 자연학습장으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즘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서민들이 은기를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로 고충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과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에 각별한 정성을 쏟아 나갈 생각이다.

또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아동과 여성들이 든든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더욱 끌어올리고자 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완공되는 상무금호 보건지소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인 체계적인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역시 중요하다. 양동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와 공영주차장 설치, 양동복개상가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등을

초교에서 월드컵경기장 간 도로를 올상반기 중에 개설함은 물론, 옛 국경원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 감동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불친절하고, 불편하고, 잘못된 행정은 즉시 개선할 수 있게 해피콜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CRM활용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전자알림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백호의 해라고 한다.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모든 일을 판단하되, 행동은 소처럼 우직하고 신중하게 하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올해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201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 넘치고 앞찬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구청장>

콜센터 직원에 막말·폭언... 이젠 사라졌으면

나는 한 쇼핑몰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정말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 하여 폭언과 욕설, 협박까지 전화폭력이 도를 넘고 있어 너무 속이 상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에 대한 클레임이라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서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서 불편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게 콜센터의 기본 임무다. 하지만, 고객분들은 이쪽의 그런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 이것들이 사람 열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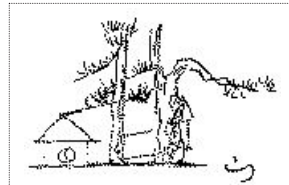
게 해네 정말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일 그 따위로 해? 상담 그따위로 해?' 정도부터 시작한다. 이런 욕설과 항의, 부당한 요구를 듣다 보면 정말 일할 맛이 안 나고 의욕이 떨어진다. 정말 얼굴 안 본다는 이유로 막말과 폭언을 해대는 우리 통신문화, 이제는 이런 부분도 선진국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조한나·광주시 북구 문흥동>

無等鼓

새해 벽두부터 한파와 폭설이 몰아치고 있다. 이런 날씨가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다. 추사가 '윤상도의 옥'에 연루되어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을 때(1844)에 그린 것이다. 이 '세한도'는 사색간의 의리를 잊지 않고 북경에서 서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인 변치 않는 성심에 감동해 담례로 그려준 그림이다.

무가 두 그루씩 서 있을 뿐이지만 작품의 절제미와 간결미 등은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자랑한다.

세한도



'세한도'만큼 시인·묵객들의 작품 주제나 소재가 되어온 한국 회화도 드물 것이다. 추사는 그림의 발문에 공자의 논어 '자한'편 한 대목을 인용했다. 세월 추위가 지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는 의미인 '세한연'이다. <경성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1910년 일본경찰에 체포된 뒤 만주 뤼순 감옥에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염원하며 '세한도'의 글씨를 새겼다. <경성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를 찬 사래가 적지 않다. 그 폐해는 곧 부메랑이 되어 유권자의 뒤통으로 떠안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세한심'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를 가려내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성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전화 222-8111
www.kwangju.co.kr